

# 소설 '덕혜옹주' 영화로 재탄생 한다

### 주인공 손예진 "사명감과 부담감 컸죠"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 4년 만에 내놓은 영화 '덕혜옹주(사진)'에서 주인공 덕혜옹주를 연기한 배우 손예진은 실존 인물을 연기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29일 광주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어서 사명감이 있었다"며 "그만큼 부담감과 압박도 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손예진 외에 박해일, 라미란, 정장훈 등 출연배우와 허 감독이 참석했다.

손예진은 "실제 덕혜옹주 관련 다큐멘터리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과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상황에서 실제 덕혜옹주라든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 간에 점점을 찾아가고 고민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덕혜옹주'는 권비영 작가가 2009년에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덕혜옹주는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환궁에 얻은 막내딸이다. 고종 승하 후 만 13살에 일제에 의해 강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다.

일본에 가서는 백작과 정략결혼까지 하고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다 정신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그가 고국의 땅을 밟은 것은 1962년에 이르러서다.

손예진은 "예전에 소설을 읽었을 때 생각했던 덕혜옹주와 연기하면서 바라본 덕혜옹주는 아주 달랐다"며 "슬픔과 연민의 감정으로, 한 여인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개봉한 영화 '비밀은 없다'에서 딸의 실종으로 점차 이성을 잃어가는 예비 정치인 아내를 연기했다.

손예진은 "'비밀은 없다'에서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마음껏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며 '덕혜옹주'는 역사적 인물이고 시대극이어서 저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제약이 많았다"며 양 캐릭터를 연기할 때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원작 소설이 덕혜옹주의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되다만 영화는 여기에 독립군이 왕족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시도한다는 허구적 사건을 더했다.

새로 추가된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 배우 박해일이 맡은 김장한이다. 김장한은 덕혜옹주의 어린적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박해일은 김장한이 속한 단체가 모종의 작전을 진행하는 장면을 가장 감정의 여운이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일제 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구성원들이 벌이는 드라마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그리다 보니 허진호 감독



답지 않게 영화에 액션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허 감독은 "액션을 잘 안 찍다가 이번에 찍어보니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액션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웃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를 다른 TV 다큐멘터리를 본 것을 계기로 그의 삶을 다룬 영화를 만들려고 했으나 곧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다. 그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또 그가 영화로 다뤄질 만한 위인인가라는 의문도 들었다는 것.

하지만 '덕혜옹주'라는 소설이 나오게 되자 사람들에게 널리 인기를 얻게 되자 "분명 덕혜옹주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 KBS 광주방송 '에너지밸리' 총정리

### 오늘 밤 9시25분 방영

KBS 광주방송총국(총국장 강정기)이 혁신도시 조성 2년째를 맞아 '에너지밸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KBS 광주총국은 30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 본사 앞에 이동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특집 뉴스 '에너지밸리 미래를 꿈꾸다'를 밤 9시25분부터 45분까지 KBS 1TV를 통해 방송한다.

'에너지밸리 미래를 꿈꾸다'는 혁신도시

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개념과 기업 유치 현황,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전천이 연구·개발 중인 에너지 신산업, 지열 제도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컨트론타워가 될 '에너지밸리' 전반을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연구 인력만 50만명, 2만개 입주 기업을 자랑하는 중국 베이징 중관촌 현지 취재로 연구개발 중심 기지로서의 '에너지밸리' 방향성을 가늠해본다.

/김홍희기자 kimyh@

## 부당주식거래로 역대 차익 가수 정용화, 검찰소환



소속 기획사의 유명 방송인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역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사진)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용화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의 부당 주식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용화를 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정용화는 작년 7월 이전 지인 1명과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약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용화 이외에도 소속사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유명 방송인 영입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사 주식을 사교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1~2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흔적을 포착하고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입건자 중에는 연예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이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는 중으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금희 '아침마당' 18년만에 하차

방송인 이금희(사진)가 오는 30일 KBS 1TV '아침마당'에서 하차한다. 진행을 맡은 지 18년 만이다.

KBS 관계자는 29일 "이금희 씨가 30일을 끝으로 '아침마당'에서 하차한다"며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이금희는 1998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왔다. 7월 1일부터는 임시인 KBS 아나운서가 투입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덕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덕터 365 05 토크쇼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상)(재)	00 SBS 12 뉴스 20 덕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킹특선 <보물섬> 55 감성애니 하루 (재)		30 MBC 다큐프라임(재) <교실, 주인을 찾습니다>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를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덕터365
3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튜닝생활체조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 사이월드(재)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너 동니와 해너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25 특집 KBS뉴스9(광주전남)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프로스포츠, 희망으로 가는 길>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12	30 넷워킹 문화특선 울대뮤직(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3부)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당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곰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미역소고기찌개와 콩나물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신다 (집밥고성선전전기 - 외식중독) 20:40 다큐ולם <식인전사의 후예, 아스맛족>	20:50 세계테마기행 <아무르를 가다 4부 - 검은강으로 들어가는 배워> 21:30 한국기행 <여자의 바다 4부 - 내겐 너무 아름다운 바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엄마밥>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글로벌 백년손님, 우리 사이 좋은 사위!> 24:05 역사채널e(재) 24:10 EBS 스페셜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5월 26일 癸未)

<b>子</b>	48년생 막상 임하면 마른 나무 꺾듯 할 것이다. 60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72년생 당과 과제는 능히 해내고 남음이 있겠다. 84년생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3, 35	<b>午</b>	42년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체하느라 슬퍼보아야 할 때이다. 54년생 불만이라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66년생 중점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8년생 덕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9, 83
<b>丑</b>	49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61년생 시작되자마자 곧 종결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73년생 상당한 손실을 치르거나 어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리라. 85년생 의욕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43, 38	<b>未</b>	43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55년생 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67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한 번 시작 단념할 실타라 풀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57
<b>寅</b>	50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2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74년생 갑갑한 마음을 유연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86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15, 19	<b>申</b>	44년생 상대가 자신보다 더 절실해 원하고 있으니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6년생 당장 처리해야만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68년생 실정을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80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특이점이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08, 48
<b>卯</b>	51년생 걸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63년생 하나의 조치를 여러 가지를 이루리라. 75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87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22, 77	<b>酉</b>	45년생 지금은 내색할 때가 아니로다. 57년생 조화롭지 못한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69년생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이 없을 것이니 너무 따지려들지 마라. 81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무의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87
<b>辰</b>	40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52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64년생 배려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76년생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अच्छ게 거두리라. 88년생 헛수고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50, 75	<b>戌</b>	46년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할 수다. 58년생 주관적 추측이러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70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82년생 끝까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60, 40
<b>巳</b>	41년생 임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53년생 독특한 요령이 필요한 때이다. 65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리라. 77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89년생 바라만 보아도 황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49	<b>亥</b>	47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 해야겠다. 59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71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83년생 더불어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행운의 숫자 : 16,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